

## 구석기인은 어떻게 사냥하였을까?

이경수, 101호 구석기실 18:00~18:30

구석기인들은 구석기시대 전 기간에 걸쳐 채집과 사냥이 주를 이루고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족지 자료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원시 집단들이 채집을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사용하고 사냥은 기회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구석기시대에도 유사한 방식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석기인의 사냥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기거나 죽은 동물의 사체를 수습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냥 방법으로 몰이사냥의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스페인 토랄바(Torralba) 유적에서는 매머드를 불로써 몰이하여 늪지에 빠뜨린 후 사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클락톤온시(Clacton-on-sea) 유적에서 전기구석기시대의 ‘창’ 끝 부분이 발견된 바 있으며, 독일의 쉐닝겐(Schöningen) 유적에서는 1998년부터 조사가 진행되어 40만년된 구석기시대의 나무창 8자루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구석기인들의 사냥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림1. 매머드 몰이사냥 모습

직접적인 사냥의 증거들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석기인들의 사냥은 어린 개체이거나, 무리에서 낙오된 늙거나 병든 동물을 주로 사용하는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민족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작은 포유류, 곤충류 등이 주요한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구석기인들에게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9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1월 2일)

## 특별전 ‘외규장각 의례, 그 고귀함의 의미’

### - II부. 예禮로써 구현하는 바른 정치 -

임혜경, 특별전시실 18:00~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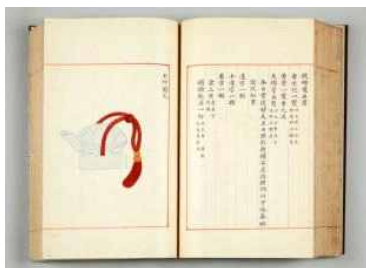
‘의식儀式의 궤범軌範’ 의례는 조선시대 중요 국가 행사의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행사 매뉴얼은 아닙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원리와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회적 가치를 담은 국가 경영 지침서입니다.

의례는 국가 의례나 행사에서 모범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모범적인 의례란 바른 예법을 잘 따른 의례입니다. 의례는 그 예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의 경험을 모은 것입니다.

의례에서만 예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왕이 추구해야 할 바른 정치도 바른 예법을 따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효孝나 충忠, 신의信義 같은 사회적 덕목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禮입니다. 왕이 먼저 바른 예를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예로써 구현하는 바른 정치입니다.

바른 예법으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신하와 백성들이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왕과 왕실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의례가 각별하였습니다. 신의信義에 기반을 둔 군신관계를 정립하고, 백성들과 고락苦樂을 함께하려는 애민愛民의 자세를 기르는 의례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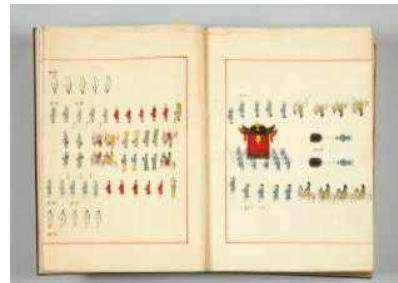
예법禮法으로 왕조의 정통을 세우고 백성을 아우르는 품격의 통치, 그것이 의례에 담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례는 후세後世를 위한 모범적 선례先例이자 영구히 전해야 할 왕조의 정신적 문화 자산입니다.



<문효세자책례도감의궤>



<문효세자 왕세자 옥인>



<경종-단의왕후 가례도감의궤>

## 고려시대 묘지명

김선미, 113호 고려 I 실 19:00~19:30

묘지墓誌는 무덤 안에 묻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무덤 주변이나 무덤 내부에 남기는 기록입니다. 묘지명墓誌銘은 고인의 생애나 업적을 칭송하거나 죽은 이를 추모하는 내용을 넣은 운문인 명銘을 실은 묘지를 말합니다. 묘지명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가족관계와 가문, 생애의 중요한 사건이나 업적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묘지명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고려시대의 묘지명은 현재 약 360여 점이 전하는데, 대부분 지금의 개성과 그 인근 장단 지역에 걸쳐 조성된 고려 왕실, 관인, 승려 등의 무덤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 중 오늘 소개할 묘지명은 복녕궁주福寧宮主의 묘지명입니다. 복녕궁주의 묘지명의 형태는 묘비형이고, 묘지 윗부분에 당초무늬를 넣었고 그 아래로 복녕궁주 가족과 생애에 관한 내용과 그를 기리는 명을 넣었습니다.



그림 5 복녕궁주 묘지명

복녕궁주는 고려의 15대 왕 숙종의 넷째 딸로, 어머니는 명의태후明懿太后입니다. 궁주라는 호칭은 ‘궁궁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고려전기에는 국왕의 부인이나 딸 등에게 부여되었던 호칭입니다.

복녕궁주는 진강백晋康伯 왕연王演과 혼인하였습니다. 왕연은 고려의 11대 왕 문종과 인경현비仁敬賢妃 사이에서 태어난 진한후辰韓侯 왕유王楡의 아들입니다. 복녕궁주와 왕연은 혈연적으로 사촌관계입니다. 고려 왕실의 공주들은 종실과 혼인한 전통이 있었는데, 복녕궁주의 혼인 역시 이런 전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명銘에서 복녕궁주를 ‘천자天子의 딸’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는 내부적으로 천자국을 자처하여

체制, 태자太子, 태후太后 등 천자국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복녕궁주 묘지명 또한 고려 왕실의 자긍심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제698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11월 2일)

## 특별전<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2)

- 합스부르크 600년, 수집의 역사를 보다 -

양승미, 기획전시실 19:00~19:30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오스트리아 빈미술사박물관 특별전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집한 소장품 총 96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화, 공예, 갑옷, 태피스트리, 복식 등 다양한 재질의 수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역사적 맥락으로만 접해왔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수집의 역사라는 틀 안에서 조명함으로써,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던 가문이면서도 예술의 후원가이자 수집가로서 했던 새로운 역할로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루돌프 1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1273년부터 1차 세계대전 뒤 카를 1세가 왕정을 끝낸 1918년까지 약 600년간 유럽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6세기 프라하와 티롤 지역, 17세기 스페인과 플랑드르 지역 등 다양한 거점을 중심으로 수집활동을 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수집품을 꾸준히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으로 모았습니다. 18세기에는 최초로 수집품을 궁전에 전시해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했고, 19세기에는 집대성한 빈미술사박물관을 건축하였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600년간 수집한 예술품은 빈미술사박물관에 남아 열정적인 예술 수집가이자 후원자였던 그들의 면모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술이 곧 힘이자 지식이고 권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순탄하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수집을 이어왔고 집대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매혹의 걸작들을 감상하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켜낸 예술의 힘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흰 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그림2. 주피터와 머큐리를 대접하는 필레몬과 바우키스



그림3. 프랑스로 2세 대공의 독수리 장식 갑옷



그림4. 십자가 모양 해시계